

2/16/20

설교 제목: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 장 1-26 절

- (창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창 4: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 (창 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창 4: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창 4: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창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 (창 4: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창 4: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창 4: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절관주** 욕 16:18
- (창 4: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창 4: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 (창 4: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절관주** 겔 9:4

가인의 후손들

-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 (창 4: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절관주** 시 49:11
- (창 4: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 (창 4: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 (창 4: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 (창 4: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 (창 4:22)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 (창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 (창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절관주** 창 4:15

셋을 통한 인류의 시작

- (창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절관주** 창 12:8, 창 26:25

본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과 함께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이 두 계보 중 한 계보에 속합니다.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하고 세속적이며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경건한 계보입니다.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 4: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저주받은 삶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첫 아들을 낳자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신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후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그들은 각각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들은 자라 철이 들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제사를 드립니다.

(창 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인간은 철이 들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절대자를 찾게 되는 법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둘은 각자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으나 히브리서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분노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고쳐 제사를 드렸어야 했음에도 교만하여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창 4: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 4: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분노는 아우 아벨을 향한 시기와 미움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살인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창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창 4: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창 4: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우 아벨의 행방을 물으십니다.

가인은 가증스럽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고 반문까지 합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 4: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 4: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땅에서 저주를 받자 가인은 결국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인은 사람을 향한 범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육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며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창 4: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늦 땅에 거하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계보를 이룹니다.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창 4: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 4: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인의 후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함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았으며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힘과 문명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절제되지 않은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제도인 일부일처제를 거역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했고 그들을 통해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창 4: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창 4: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창 4: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 4:22)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두 아내 중 아다는 두 아들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목축일에 종사하여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가 되어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쉴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철공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 내며 세상에서 번성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주셨건만 그들의 피에는 가인 속에 흐르던 거칠고 악하고 뻔뻔스러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창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창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살인을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도 두 아내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인한 가인을 위해 그를 해치는 자에게는 7 배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를 들면서 자신을 해치는 자는 77 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이로써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 되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 줄 알았던 하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온 세상이 악으로 뒤덮여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130 살이 되었을 때 하와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은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 주셨다는 뜻으로 셋이라고 짓습니다.

셋은 '지명된 자' '보상' '대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인의 후손이 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들을 낳자 하나님의 말씀이 셋을 통해 성취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셋은 경건한 계보를 이어 갔습니다.

365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 역시 셋의 후손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셋의 후손입니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노스는 경건한 공적 예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게 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악기와 기계를 개발하는 등 세속의 문명을 발전시킴으로써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동안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경한 가인의 후손들이 당장 아무리 변영하고 변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경건한 셋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변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도와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범람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경건한 셋의 계보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